

# 전여대협 총회 의식화 자료집

## 0. 전여대협 이란

### 1. 전여대협의 역사

### 2. 전여대협은 어떤 일을 하지요

### 3. 2000년 전여대협은 무엇을 하지요

### 4. 전여대협 총회 3문 3답

## 0. 전여대협이란?

(전여대협은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전국여대협)의 준말로 전국의 각 대학 총여학생회장님들로 구성된 협의기구입니다. 전여대협은 여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문제로 나서는 봉건적인 낡은 사상과 자본주의의 성차별적 지배논리를 타파하고 여성의 자주적인 힘으로 남녀평등 인간해방이 된 세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50만 여학우의 자주적 대중조직입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의 여성들의 민족해방투쟁을 계승하여 비계를 반대하고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며, 역사의 주인인 청년여학생의 힘과 지혜를 모아 여성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전여대협은 50만 여학우를 대중으로 하는 조직답게 각 지역별 지구별 대학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약하지만 과여부나 소모임 과여학생회에 여학우들이 망라되고 이것이 단 대 여학생회로 묶여지며 또한 한 대학을 아우르는 총여학생회에 속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구별 지역별로 지구여대협, 지역여대협을 만들게 되고 전국조직인 전여대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여대협 산하에는 30여개의 총여학생회가 가입되어 있고 지역여대협은 5곳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 1. 전여대협의 역사

태동에서부터는 약 20여년, 전여대협 12년의 역사는 여학생운동 전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천년 새로운세기 새천년의 여성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있어서 기간 어떻게 선배들에 의하여 빛나는 투쟁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누리려 한 사소한 권리를 찾기 위하여 피땀흘린 숭고한 희생과 노력을 견뎌야 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여성운동 여학생운동의 향방을 선명히 보여주

는 것일 것 입니다.

### <전여대협 건준위 이전의 상황>

#### ▶70년후반에서 80년 초기의 시기

이시기는 여학생운동이 태동하고 전 대학에 여학생운동 조직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독자적인 여학생 조직을 만들었던 것은 70년대 후반에서부터입니다. 78,79년 당시의 학생운동은 신치하에서 비밀스럽게 유지되던 이른바 언더사회과학 학회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보안을 생명으로하던 지하 사회과학 학회는 여학생들에게는 철저한 금단의 영역이었습니다. 그것은 여학생수가 적은 학교라는 뜻도 있었지만 더 중요하게는 여학생들이 학생운동에 직접 참여하면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학생이 감옥에 가면 약혼자를 병상에서 여 감옥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여학생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실천으로 여겨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나름대로 사회의식을 가지고 있던 여학생들에게 이러한 사회과학 학회의 단려진 문은 커다란 충격이자 좌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학회의 분위기를 버린다는 이유로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엄중한 신전을 감당하기도 못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남녀가 함께 있으면 분위기가 풀이지 학회의 상례를 망치고 만다는게 여학생들을 받아줄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사회과학학회를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수없는 좌절과 모멸을 겪어야 했던 몇몇 여학생들의 주도하에 학회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진보적 이라는 학생운동권에서 가장 후진적인 남녀차별 행태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필연적인 일이었습니다. 여학생들이 제법이라는 설의 반응을 보인 쪽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주체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여학생들의 의식은 단단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학생들끼리 모여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역할을 맡고 실천해나가는 과정은 진정으로 사회적 의식과 자신의 삶을 일치시켜 나갈 수 있는 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녀차별의 이데올로기는 다만 남성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 입생들은 남녀 성씨같은 선호하고 여학생학회에는 가입하기를 꺼리고 남학생들의 비방에서 여학생들이 가입을 꺼리는데 한 몫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문제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급진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모순을 적대적인 것으로 파악하려는 경향과 민족민주운동내부에서 공동의적에 대해 투쟁하면서 도 여성의 독자적인 권리를 위해 투쟁하지 않으면 남성들의 보수반동현상을 막기 어렵다고 보는 분열주의적인 경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문제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잡지를 펴내는등 여학생학회의 좁은 틀로는 수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로 단과대학 여학생회로 포괄해 내면서 여학생들의 입지가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이 학생운동에서 나름대로의 몫을 해내면서 82년이후 점차 학회들이 여학생에게 분호를 개방

게 되었습니다. 여학생들의 참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해졌고 오히려 군대문제등으로 인한 단절이 없어서 여학생들을 선호하기도 하였습니다.

▶84년 이후 학원자율화조치로 대중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많은 학교들이 1대 총여학생회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후의 활동은 여성문제에 대한 선전과 각종 가두투쟁을 여회단위로 참여하는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또 여성노동자들과의 연대 투쟁(봄보이 여성 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등을 통하여 사회적인 여론을 서울지역 여대생 중심으로 펼쳐졌습니다.

전여대협 건준위 이전의 여학생운동은 여성분제를 사회구조적으로 보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의 각부들의 모습은 여성분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주체의 결의가 매우 높았고 변혁운동에서 여학생운동을 끌어 나가려는 의지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학생운동내에서의 여러 이해 부족과 소수의 선진적인 활동가들이 중심인 것, 아직도 여성운동에 대한 이론들의 부족한 정립으로 인한 나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86년에서 88년까지

여학생운동의 내용성을 확보하는 시기입니다.

비합법 씨름주의 노선의 편향을 극복하고 좀더 여학우들과 함께하는 여학생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당시의 주요한 구호로는 파쇼헌법 철폐, 군부독재타도등이었는데 여학생들은 모성보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족법 개정등 민주헌법에 담겨져야 할 여성들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투쟁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반미와 통일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북한의 실상에 관한 관심이 선진적인 학생들 사이에서 높아지게 되고 반북의식을 깨고 북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정립해 나가면서 우리나라 변혁운동의 역사와 전통, 대중운동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세워나갔습니다.

이러한 군부독재와 변혁운동이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86년 여름 권인숙 성고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많은 여학각부들이 구속되어 남아있는 간 부들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결단을 하고 투쟁주체를 세워냈으며 서울대,고대, 성대를 중심으로 공동 대책위를 세워 학내시위, 가두시위를 주도하였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부천 검찰청에 농성과 방화플 시도하였습니다.

이속에서 여학생들의 화염병 투척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대중적 토대에서 전개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투쟁으로 끝나고 말았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학생운동 또한 연대운동속에서 더욱 조직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교훈 속에서 서울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가 건설되게 되었습니다.

88년 하반기에는 유림픽 반대투쟁에 결합하여 배춘유림픽 반대투쟁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미국내에

잡지의 한국인 모독 기사에 분개한 재미교포의편지가 오면서 여대협, 여성단체들이 공동의 투쟁을 벌였고 주한미군부대를 중심으로 에이즈 추방운동을 벌였습니다.

▶87년 이후에는 여학생운동의 대중화에 대해 어느때보다 심각하게 제기됩니다. 여학생회 건설이 형식적인 선거를 치루는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대중적인 토대를 구축하고 학우들 속에 뿌리박는 것이 그 첫 출발이라는 뼈저린 교훈을 통해 대중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88년에는 이러한 87년 여학생운동의 대중화 논의속에서 중요하게 제기되었던 기층 여학생회 건설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소규모의 학습모임에서 학우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학우들 만날 수 있는 실천활동을 강화했다는 것은 분명 진일보한 모습이고 여학생회의 활동을 강화한다는 것 또한 진일보한 모습이었으며 여학생회 활동이 확산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자주성에 기반한 사업을 벌여내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행사와 실무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형성되기 시작하는 대중의 모임은 파괴하는 작용을 하였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89년부터 92년 말까지

이시기는 여학생운동의 내용적 강화와 조직운동으로써의 여학생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내게 될 때까지 되는 시기입니다. 또디어 전국조직을 결성하게 되는데, 전국적으로는 평양축전을 계기로 전국 총여학생회장단 약 70여명이 모여서 전여대협 건준위를 구성하고 평양축전에 제 7센터에 가입 및 150여명의 민족통일여학생단을 조직하여 선전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는 기간에 서여대협을 중심으로 여학생운동을 조직적으로 연대할 것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전국적인 여학생 운동의 성장으로 자기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시킬 방법과 조직건설에 노력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89년은 전여대협 건준위 진성이라는 고무적인 분위기속에서 여성 자주화의 이념이 확산되고 각 중심의 조직안이 제기되면서 대중운동을 통한 여학생운동의 조직적인 발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89년 취업차별 철폐투쟁은 정치투쟁중심의 선도투쟁의 편향을 극복하고 대중적인 이해와 요구를 모아보려는 모범적인 투쟁이었으나 상층과 기층이 취약한 상태에서 여학우대중과 함께 벌여내려 노력하였습니다.

89년 이후에는 기간의 다양한 실천과 투쟁속에서 얻어진 한계와 성과들을 통해 '여학생운동은 학우대중을 자기삶의 주인으로 세우기 위한 운동'이라는 명제가 광범위하게 공유되어지게 됩니다. 또한 88년 89년을 거쳐 여학생운동의 조직적인 성과물로서 각 지역 총여학생회 연대기구인 지역여대협이 전국적으로 건설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대협은 지역차원으로 여학생운동을 통일적으로 조직적으로 전개하며 지역의 분체를 풀어나가고자 출발하였습니다.

-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전체학생운동속에서 변혁운동의 3대 주력군 운동이 운동의 근거지로부터 강화해나가기 위한 과제가 제기되고 학생운동은 운동의 대중화와 통일단결을 이루는 것을 조직적인 과제로 삼는 자주적 학생회 건설의 새로운 기지를 들게 됩니다. 자주적 학생회노선에 기반하면서 여학생운동에서도 자주적 학생회를 더욱 풍부히 고민하는 자주적 여학생회노선이 제기됩니다. 학생운동 전 반적으로는 기층과 사업단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면서 여학생운동속에서도 대중 노선을 구체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학생회 모임이 다양하게 건설되면서 의식화의 내용도 이전의 관성적인 사회과학 학습위주만이 아니라 여학우들로 하여금 식민지 여성으로서 자기존재를 인식하고 여학생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92년은 보은 진과투쟁은 많은 여학우들의 분노에 기반해서 여학생회가 여학우들과 함께 끈질기게 투쟁을 벌였던 여학생운동사에서는 큰 획을 긋는 시기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보은, 진과 무죄석방투쟁이 처음에는 무죄석방과 성폭력특별법 제정, 그리고 5월에 들어서면서 성폭력 없는 민주정부 수립으로 7월에 들어서면서 성폭력의 근원 주한미군철수투쟁으로 바뀌어 가면서 정세적인 투쟁의 과제로 옮겨 갔으나 많은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92년도 윤담이씨 투쟁과 서여대협 차원의 기저촌 활동은 우리 여성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식민지 분단조국이라는 남한사회의 현실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을 구체적 현실로써 느낄 수 있는 계기점이 되었습니다. 여학생운동에서 자주, 민주, 통일의 과제를 당위적인 과제로 세우면서도 그것을 자기 내용으로 받아안고 있지 못하였으나 윤담이씨 투쟁속에서 실천적인 경험을 통해 반미자주통일 투쟁을 여학생운동의 과제로 삼게 되는 중요한 계기점이 되었습니다.

#### ▶ 93년부터 96년까지

이 시기에는 그동안 계속 여학인권을 사이에서 제기되어 왔던 자주적 여학생회가 본격적으로 표면화되는 시기입니다. 93년에는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일대전환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14대 대선패배이후 결과에서 나타난 민주민주운동의 투쟁성과와 한계를 총화하고 더 높은 수준에서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전개해야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93년 제기되는 총적인 과제는 대중의식화를 강화하는 한편 각계각층의 대중조직기반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국내의적인 정세속에서 학생운동 또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게 되고 학우들의 자주적인 삶을 넓혀주고 진정 학우들이 만들어가는 대중 자치공간으로써의 학생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지한 모색속에서 전대협의 전통을 계승혁신하는데 백만정춘의 조직으로써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를 총적 가치로 내걸게 되는데 제 1기 한총련이 건설되게 되었고 학우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에 근거하여 철저히 학우들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기지를 들고 생활, 학문, 투쟁의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부계운동의 강화의 한목소리가 전체운동속에서 어느때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94년 제 2기 한총련 대의원대회에서 제6기 전여대협(간)이 성식으로 한총련에 가입하게 되고 이런 내부에서도 부계운동강화소위를 구성하여 이전의 형식적인 관계에서 신일모하여 부계운동운용적으로 시도하고 결합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대 양애리학우 부계운동을 앞장서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가정폭력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해 크게 투쟁하였습니다.

여학생회 자체에서도 자주적 여학생회원의 구체적인 정립, 여학생운동의 사상적 좌표를 모색하는 노력이 어느때보다 활발해지고 6년동안 전여대협 투쟁의 역사를 평가하면서 어느때보다도 한총련 전여대협의 건설의 기지를 들게 됩니다.

95년에는 전여대협 총회를 통해서 전여대협을 건설하고 통일선봉대를 조직하여 7,8월의 통일투의 불바람을 일으키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모았으며 통일투쟁의 일환으로 이북의 조선학생위원회 산하에 여학생회조직과 자주교류의 불바람을 크게 시작했습니다.

#### ▶ 96년말부터 99년까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제도약하는 여학생운동의 절적 발전을 도모하는 시기입니다.

96년, 97년은 김영삼정권의 지부가 드러나면서 민중들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정권에 항거하는 투쟁이 거세지는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김영삼정권은 파쇼독재기구를 운영하여 한총련 씨발리기-학생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진행하게 됩니다.

96년 여름 연대항쟁때 사상유례가 없는 물리적, 사상이데올로기적 공격을 통하여 수천명의 학생투쟁에 참가한 학우들을 강제 연행하고 여론을 조작하여 뺑깡이로 만들었은 뿐 아니라 97년 한총련 출범식을 계기점으로하여 한총련 단위를 총용, 한총련 대의원인 해산들을 연행하였고 한총련을 이 단체로 만들어 그이후까지 계속 탄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학생운동단위는 96년 연세대 항쟁가운데서 발생한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진상 규명 책임자간 투쟁을 법적 투쟁과 여론화활동을 광범위하게 벌여냈고 당시 김영삼 정권을 만어성, 만민중 정권으로 규정하고 김영삼 정권을 조기타도 하는 투쟁에 최선봉에서 완강하게 투쟁하였습니다.

이속에서 여학생운동을 하는 각 대학 총여학생회장님들은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수배와 구속을 맞게 되었고 학생운동의 어려움 속에서 여학단위뿐 아니라 전체 학생운동단위까지 책임적야 하는 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97년 학생운동에 붙여닥친 탄압과 여러 어려움들은 핵심의 구속, 학생운동에 대한 대역론적인 반감등으로 학생운동의 약화를 가져오게되는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전체 운동의 화속에서 여학생단위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되고 조직적 기반이 흔들리지 못한 상황에서 그 피해상당히 컸고 전여대협 의장님을 비롯한 핵심들의 구속으로 만민이상 김백의 사기를 깊어 지게

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시기가 그저 시련과 피해로만 점쳐진 것은 아닙니다. 학생운동단위의 어려움속에서 전체 운동까지 책임지면서 운동의 핵심으로서 단련된 많은 여학생들이 배출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여학생운동의 변혁운동적 성격을 확고하게한 계기였으며 많은 사상적 혼란속에서 굳건히 자주, 민주, 통일 의 가치를 함께하는 여학생운동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핵심들을 중심으로 다시 여학생운동의 사상적, 조직적 과제를 도출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대협과 전여대협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부계단위가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전여대협만은 굳건히 자기자리를 지키고 전여대협 총회와 출법식, 통일선봉대를 꾸준히 치루어냈으며 중앙회의등 전여대협 회의구조또한 안착화시켜 나갔습니다. 이기순, 허주연 신차금 전지나 이정숙씨에 이르기까지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에 선봉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투쟁에 있어서 300차 400차 수요시위를 성사시키면서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대중화, 전국화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고 자주교류 및 연대사업또한 진일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학생운동의 사상적, 조직적 기반의 일세는 꾸준히 극복해야하는 과제로 남아있고 역량이 많이 축소된 상황에서 이후 전여대협을 대중조직단게 세워내기위한 시급한 대책을 세워내야 한다.

### <큰 투쟁의 흐름으로>

- 89년 건준위 1기부터 95년 출범후 6기까지의 전여대협의 역사를 짚어보자
- 87년 서울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발족 이후 각 지역 여대협 발족
- 88년 매춘 율법적 반대 투쟁, 주한미군 전수를 중심으로 에이즈 추방운동
- 89년 평양축전 제 7센터 참여 및 민족 통일 여학생단 조직, 활동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건설 준비위원회 결성
- 90,91년 전여대협 간부 수련회, 취업차별철폐투쟁, 지속적 지역 교류 사업
- 92년 김보은, 김진관 석방 투쟁, 성폭력 특별법 제정 투쟁 93년 윤금씨 살해 미군 처벌 투쟁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본부 공동 발족
- 94년 양애리 학우 구명운동, 전여대협 2기 통일선봉대 활동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에 가입
- 95년 1기 전여대협 의장 박경희 (경희대 총여학생회장) 제1기 전국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건설 전여대협 3기 통일선봉대 활동

정신대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전여대협 일본 대사관 항의방문  
성폭력 상담 요원학교로 학대 성폭력 근절 운동 전개  
이북과의 첫 자주교류 시작

96년 2기 전여대협 의장 김유경(경성대 총여학생회장)  
정신대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국회청원 서명운동  
529수요집회 전국 집중 투쟁  
4기 전여대협 통일 선봉대 활동

97년 3기 전여대협 의장 김정숙(동아대 총여학생회장)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근절 투쟁  
반여성정권 김영삼 정권 조기 타도 투쟁

98년 4기 전여대협 의장 장윤영(경북대 총여학생회장)  
IMF반대 여성민중 생존권 쟁취투쟁  
300차 수요집회  
전여대협 통일선봉대 활동

99년 5기 전여대협 의장 최선영(경기대 총여학생회장)  
주한미군 철거, 일본군 위안부 문제 3차 연대 해결 투쟁  
3'19용산미군기지 앞 항의시위  
전여대협 가지촌 활동  
전여대협 통일선봉대 활동

## 2. 전여대협은 어떤 활동을 합니까?

### <전여대협의 강령>

- (1) 여성의 성침탈에 앞장선 미국과 일본을 반대하고 모든, 외세의 부당한 정치, 군사, 경제, 문화 간섭과 침략을 막아내고 민족 자주권을 회복하여 여성의 자주화, 조국의 자주화를 이룩한다.
- (2) 이천만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고 사회전반의 민주주의 실현의 힘들과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하고 국민들이 자주적, 창조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완전한 사회 민주화를 실현한다.
- (3) 조국의 영구분단을 막아내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아래 조국을 통일한다.
- (4) 학원내 온갖 반민주적, 성차별적 교육과 제도를 반대하고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쟁취하여 학원 자주화를 이룩한다.
- (5) 여성농민, 여성노동자, 재반 애국적 사회단체와 굳게 연대하여 공동투쟁한다.

- (6)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계급주의 문화와 소비향락적인 문화를 척결하고 학원과 생활 속에서 건강한 민족, 민중적 문화를 일구어나간다.
- (7) 50만 여학도가 앞으로 사회에서 민족중흥과 조국발전의 당당한 주체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서기 위한 학문의 습득과 단편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8) 백만 청년학도와 통일단결하여 투쟁한다.

### 3. 2천년 전여대협은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 〈전여대협 10대과제〉

##### 1)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하고 주한미군 철거시키자.

올해만 해도 벌써 2명의 기지촌 여성이 살해되었다. 여성민중의 살 길을 차단하여 기지촌까지 흘러 들어가게 하더니 주한미군에 의해 죽임당하는 것에 손 하나 꿈쩍 않고 있다. 기지촌 여성의 죽음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주한미군이 이 땅에 들어온 이래 이 땅에 퇴폐·향락 문화를 들여놓았으며 성의 상품화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더군다나 여성민중을 강간, 폭행 등 노리개인양 취급하고 제 성에 차지 않는다고 아무렇게나 목숨을 짓밟았다. 그리고 올해는 2번째나 기지촌여성이 주한미군에 의해 살해되었다. 주한미군에 대한 처벌을 명백히 해야 할 것이며,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고 근본적으로 주한미군 철거에 앞장서야 한다.

##### 2)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완전 해결하고 일본에 대해 명확히 사죄·배상을 촉구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민족적·계급적·성적·인종적 억압이 모두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문제이다. 그러한 문제가 50여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50여년동안 위안부 았음을 숨기고 살아갈 수 밖에 없도록 했으며 또는 생을 자포자기하고 매춘여성, 기지촌여성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가부장적 요소가 이 사회에서 너무나 팽배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이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조장, 유포하는 사회구조 및 일본놈들에 대한 사죄, 배상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일본놈들이 그런 일을 벌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3)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IMF 이후 여성에 대한 억압은 더욱 극명해졌다. 여성노동자의 경우 여성의 본업은 '가정'이다 라느니, 남성은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으니 여성 정리해고가 우선이지 않겠느니 하며 여성에 대한 2중 억압, 고통의 굴레를 더욱 덧씌워갔다.

여성 또한 명백한 이 사회의 주체이며, 구성원이다. 공통이 책임져야 하며 자본가가 책임져야 할 가사노동은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하여 여성에게는 2중의 고통을, 자본가 및 기득권에게는 2배의 이득을 갖게하는 이 사회구조 철폐, IMF 협약 철회시키고 여성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한다.

##### 4) 신자유주의와 WTO 반대하고 여성농민의 삶을 보장하라.

민족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고 계속 늘어가는 농민 체에 농약을 먹고 자살하는 농민들의 수 또한 그에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다. IMF에다가 신자유주의와 WTO까지 농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만 하고 있다. 기본적인 생존권 또한 보장되지 않는 농민이 많고 더군다나 가장 가부장적인 요소가 큰 계층이어서 여성농민들은 몇 집의 '하중과 차별'을 받고 있다.

자주농업의 파탄을 불러일으킨 신자유주의와 WTO를 반대하고 여성 농민의 삶을 보장하고 여성농민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의 상상을 위해서 힘쓴다.

##### 5) 매매춘을 근절하고 매매춘 여성의 삶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라.

매매춘은 명백하게 사회구조상 여성이 어쩔 수 없이 택할 수 밖에 없는 직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책임은 생각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니 하며 매매춘 여성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들의 삶을 외면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더군다나 현 정부는 공창제도 입법화를 운운하며 공공연하게 부추기기까지 하였다. 지금도 같은 서장을 앞세워 미성년 매매춘을 단속하고 있지만 그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지 않고 있다. 미성년 매매춘이 아닌 경우는 상관없는 것이며 또한 단속 이후 그런 생활을 하게 된 여성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고 있는가 하는 말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며 투쟁한다.

##### 6) 군복무가산점제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조국통일 앞당기자.

작년 말 떠들썩하게 했던 군복무가산점제를 둘러싼 논란에서 이것을 정의 대결로 만들어가면서 결국 다시 군복무가산점제를 인정해버린 어이없는 일이 있었다. 조국의 분단으로 인한 여성에 대한 회차별이고, 사회가 그 책임을 다해야할 것이지 직업에 대한 기회균등을 저해하는 요소로 되어서는 안된다.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정치, 경제적인 부분에 균등한 역할이 아닌데도, 차등의 의지로 규정짓고 사회화과정에서부터 고쳐나아가야 한다. 교육, 언론, 대중 매체 등 사회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고쳐나아가야 한다. 군복무가산점제 또한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군복무가산점제 폐지와 제대군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며 본질적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앞장서야한다.

##### 7) 제도적으로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통일을 위한 이 북괴의 사대교류를 펼쳐낸다.

분단으로 인해 이 땅은 군사주의가 팽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여성은 사회의 주체가기보다는 수혜자가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더 이상 이남 당국이 이러한 정책적 방향으로 갈 수 없도록 하는 조국통일을 시급히 이룩하는 것이다. 조국의 통일을 위해 작년에 우리는 남북 노동자 교류대회를 수많은 만남을 시도해왔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가보안법은 거의 무력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법이 되었다.

해는 남과 북의 그러한 계획들이 더 많이 짜여져 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는 식이 아니라, 정부가 지정한 장구를 통한 것으로만이 아니라 누구나 통일을 원한다면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조국분단을 영구화하는 법적 장치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는데 각 대학별 지역별 여학우들의 자주교류를 광범위하게 펼쳐낸다.

#### 8) 더 이상의 성폭력 범죄를 그냥둘수 없다

수많은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성에 대한 욕구를 자제할 필요가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 많은 성폭력 범죄를 발생시키는 요인 중 큰 부분이다.

성폭력 방지 특별법을 제정했으니 성폭력이 사회 전반적으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고 각 지역, 단체에서 성폭력 방지 규정을 만들도록 해야한다.

학내에서 또한 마찬가지이다. 교수, 교직원, 외부인,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을 방지하도록 예방과 처벌 차원의 성폭력 규제 학칙을 제정하도록 교육부, 대학당국에 강제할 것을 요구한다.

#### 9) 여성 대학 졸업자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예전에 비해 고학력의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 교육의 기회나 여성들의 사회참여 의지가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교육 이후 또다시 좋은 데로 시집가려면 혹은 대학이라도 나와야지 하는 식으로 여성을 교육의 소비자로만 전락시켜버린다. 여성의 실업률 가운데 가장 수치가 높은 것은 20세에서 29세 사이의 여성이다. 대부분 이 나이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문대졸 이상의 여성들이 많은 데 이를 보더라도 여대생의 고용현실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여학우 대졸생을 소비의 주체가 아닌 생산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올바른 대학교육과 인식 및 고용창출을 위해 투쟁한다

#### 10) 자주민주통일투쟁의 선봉장으로 한총련을 적극 지지하며 한총련 백만학도와 통일단결하여 투쟁한다

### 4. 전여대협 3문 3답

#### (1) 전여대협은 여학생운동하는 사람들만의 조직인가요?

전여대협은 여학생회간부들만의 조직이 아닙니다. 전여대협은 50만 여학우를 대중으로하는 대중조직으로서 전체 여학우모두의 조직입니다. 전여대협의 대표자인 총여학생회장님들이 각기 자기대학 여학우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풀어내기 위하여 이를 대표하여 활동하시는 것이지요!!

#### (2) 전여대협사업에 남학우들이나 여학생회이외의 학생회 일꾼들도 참여해야하나요?

전여대협이 여학우들의 대표체이다보니 함께 투쟁하는 사람들과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전여대협 투쟁과 사업은 여학우들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히 살펴보면 여성문제라는 것이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고 부지 불식간에 몸에 익혀온 남녀차별적인 습관 때문에 생긴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공동의 과제인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남녀모두 함께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남학우들은 여학생회 사업에 자주참여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넓은 사상과 장점을 맘껏 없애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 (3) 전여대협에서 하는 사업이 한총련에서 하는 사업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여성문제는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여성을 차별함으로써 얻은 절대적 이득과 함께 여성의 저지와 조건을 낮춤으로 남성의 임단까지 감소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인식속에서 가사일과 육아를 떠맡기 부상으로 모를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다보니 투쟁과제 가운데 한총련과 함께 할 것을 과감히 함께 풀이가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